

경주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연구
- QOL/TQOL index를 이용하여 -*

A Study on Effect of a Designation of “Yangdong Village” in Gyeongju as World Cultural Heritage on Residents’ QOL, and Its Sustainable Development

오정학**

Jeong Hak Oh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ore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Yangdong Village in Gyeongju through identifying effect of its designation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on residents’ quality of life.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achieved by empirical analysis.

First, eight valuable factors of placeness were identified through factor analysis, about which residents were especially conscious in terms of “living condition”, “cultural environment”, “economic QOL”,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sense of community”, “cooperative facilities”, “control over increasing population”, “transport environment”. Second, the importance -satisfaction scores of identified 8 factors were found very high in importance showing relatively low level of low level of satisfaction. Especially, what caused residents’s low QOL was economic status-concerned factor showing the lowest QOL index, and other factors such

* 이 연구는 2011년 대구경북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서라벌대학 호텔관광경영과 교수. e-mail: jh5142@sorabol.ac.kr

as cooperative facilities and transport environment negatively impacted on resident's QOL as well. Also, it was revealed that residents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entering of their village into UNESCO world heritage sites with hope that it would improve their economic QOL.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sustainability of Yangdong Village and research limitations were discussed, and further research direction was supposed.

주요어(key words): 양동마을(Yangdong Village), 세계문화유산(World Cultural Heritage), 삶의 질(Quality Of Life),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1. 서론

역사, 문화적으로 살아 숨 쉬는 한국의 유일한 전통마을로 평가받고 있는 경주 양동마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은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되어 보존되고 있는 씨족마을의 전통과 장소의 고유성이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후 채 2년도 경과하지 않은 현재의 양동마을은 밀려드는 방문객들과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사생활 침해,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체계의 부재 속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다행인 것은 대표성을 갖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현안 문제와 향후 양동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과 실천적인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체 역시 마을의 유일한 의견수렴 창구이자 컨트롤 타워이지만 힘의 이테올로기 측면에서 마을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또한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씨족 관계로 얽혀 있는 마을의 특성상 소수의 젊은 연령층이 중심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마을의

현안 문제 해결방안을 내부적으로 조율해가는 과정에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이제 양동마을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이러한 변화는 비단 마을 주민의 이해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 정치적 이슈와 방문객이라는 영역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동마을의 지속가능성은 내부자, 방문객,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연착륙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이러한 일련의 지속가능성 태제가 장소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주민들의 삶을 훼손하거나 장소의 고유성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알다시피 양동마을은 인위적으로 개발된 관광지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서 이들에게 장소는 오랜 기간을 거쳐 그들이 사는 공간, 사회의 의미를 창조하는 곳이고(Jackson, 1994), 단순한 땅의 개념이 아닌 사회·문화적 시스템을 포괄하며, 공통의 문화적 가치와 도구를 공유하는 개인의 집합체(Potts, Backman, Uysal, & Backman, 1992)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동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본원칙은 주민의 삶의 방식이 유지되고, 전통의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과거, 현재, 미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주민이 장소에 부여하는 가치와 사회적 공간 속에 살아가면서 인식하고 있는 삶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의미와 관련하여 문화유산 등재로 인해 야기되었거나 야기될 변화에 대한 인식을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 하면 지역민의 긍정적인 태도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발은 주민이 장소에 부여하는 의미와 연결된 관광의 태도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둘 때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지역문화와 산물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주체인 지역주민들(List & Brown, 1996)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방문객 경험의 품질로 선 순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소의 의미, 장소와 삶,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주민 인식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양동마을의 발전을 위한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첫째, 양동마을 주민의 인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장소의 의미에 기초하여 장소와 결속된 삶의 지속성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의 속성은 무엇인가? 둘째, 양동마을 주민은 이러한 장소의 속성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셋째,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마을주민이 인식하는 장소의 속성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넷째, 이러한 선행적 요소들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주민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장소에 부여하는 가치에 부응하여 지역문화에 미치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무적,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양동마을의 개요

양동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133세대 374명(남자-189명, 여자-185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마을은 앞으로는 설창산(163m), 뒤로는 성주산(109m)에 둘러싸여 있고, 넓고 비옥한 안강평야의 동쪽 구릉지에 위치해 있다. 마을은 구릉들이 4개의 맥을 형성하고 그 사이에 3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진 물(勿)자형국으로 이러한 지형은 과거부터 명당 중의 명당으로 여겨져 왔다. 월성손씨(孫昭)와 여주이씨(李蕃)의 씨족마을로 600여 년의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이 마을은 18919년 91가구가 살았던 데 비해 현재는 150여 호에 이르고 있을 만큼 번성하고 있는 특이한 마을로서 대부분의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삶의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조류(이병기, 2010)와 비교해 보면 이례적이다. 이러한 배경은 먼저, 마을의 입지적 이점을 들 수 있는데, 동남권 핵심도시인 경주와 포항사이에 위치해 3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고 도시의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다. 또한 풍요로운 안강 평야가 인접해있고, 지척거리의 안강읍에 풍산금속이 자리하여 생업에 전혀 문제가 없다(양봉렬, 2008). 또한 풍수적으로 탁월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제가 배출된 것도 마을이 번성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이며,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 천혜의 장소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양동마을의 가치는 수백 년의 오랜 세월을 이어오면서도 훼손되지 않은 마을의 형상을 보존하고 있고, 후손들에 의해 씨족 마을의 전통이 계승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연과 조화되는 한국 건축의 조형미와 그 속에 담겨진 의미, 씨족 마을의 위계에 따른 건축의 배열, 형태 등 건축학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어 선조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민속학적 가치도 매우 높다. 현재 마을에는 보물 3점과, 중요민속자료 12점, 지방유형문화재 3점 등 18점의 지정문화재와 30여 채의 비지정 문화재급 고택을 보유하고 있고, 1984년 12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마을 전체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며(강동진 & 황기원, 1997), 2010년 8월 3일에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UNESCO, 2010, 조상희 2011 재인용).

2.2. 장소의 속성과 삶의 질

실제론적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를 의미하는 공간과 달리 장소는 인간의 인식체계를 통해 특정한 이미지와 가치를 지니고 인지된 개념론적인 공간(최막중 & 김미옥, 2001)에 가까운 개념이다. 따라서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에 의해 정서적, 문화적으로 고착된 지리 환경적 무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용어이며(이은숙, 2004), 나아가 사람들이 같은 생활권으로 의식하고, 공동체적 동질감을 느끼는 마을, 행정구역 등의 정주공간을 지역사회라고 한다(김대희 & 이채식, 2004). Johnston, Gregory, & Smith(1986)는 이러한 장소의 구성요소를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적 배경인 위치(locale),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배경을 포괄하는 지리적 지역(location), 그리고 감정의 지역적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감(sense of place)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다수 학자들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장소의 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한 합치된 견해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Relph(1976)는 장소를 자연과 문화의 통합체로 개념화하고 물리적 실체, 시·공간적 맥락,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의미로 구성요인을 압축할 수 있다고 하였고, Kotler, Haider, & Rein(1993)은 사람, 문화, 역사적 유산, 물리적 자산, 기회를 뜻하는 다양한 관계가 중첩된 곳으로 장소를 정의하였다. 또한 Stokols & Shumaker(1981)는 장소는 명백한 물리적 특성들, 이들 특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 그리고 장소의 의미에 대한 점유자들의 집단적인 해석을 포함하는 기준들에 의해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장옥연(1999)은 선행 연구자들의 관점이 무엇이든 장소는 공간의 특정한 부분으로서 위치적 성격을 지니고, 사건의 발생과 특정한 목적의 활동을 수용하며,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상일(2001)은 여러 학자들이 제

시하고 있는 장소의 형성요인을 종합하여 물리적 요인, 그 속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활동, 이들이 존재하게 되는 시·공간적인 맥락, 그리고 이들이 갖는 의미의 4가지 요인이 장소의 구성요인이 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활성화되어 이들 장소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독특한 장소성을 형성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이광옥(2010)은 선행 연구들에서 논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장소는 자연적 요소, 인적 요소, 삶의 질 요소, 경영환경 요소, 문화적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장소의 속성은 위치적 성격, 사건의 발생과 특정한 목적의 활동 수용, 상징적 의미와 관련된 정의를 바탕으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장소에 부여하는 의미의 총체라고 요약할 수 있고 이러한 속성의 영역은 자연, 환경, 사회, 문화, 규범, 경제와 같은 총합적 구성요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삶의 질은 주민에게 적합한 객관적 조건과 이들 조건에 대한 주민의 주관적인 태도의 함수(Humback & Shaw, 1972)로서 신체적 정신적 이외에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환경을 포함하는 삶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Young, 1985)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다(오정학, 김철원, & 최종률, 2011). 이러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주요한 기준은 경제적, 물질적 지표로서 이는 삶의 질의 두 가지 차원 중 하나인 객관적 차원에 가까운 개념이다. 그러나 삶의 질은 개인이 사회공간에서의 생활을 통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들만으로는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완전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삶의 질은 개인이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며, 따라서 환경적, 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일지라도 단순히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되는 객관적인 지표만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진정한 삶의 질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서현숙, 2009). 그 결과 삶의 질에 대한 현대의 지배적인 관점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이 동시에 고려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렇다면 장소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주요한 목적이 지역의 경제성장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대에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과연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는 첫째, 삶의 질은 경제적 차원 외에 다양한 장소의 복합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경제적 측면이 삶의 질을 대변할 수 없고, 둘째, 삶의 질에 대한 이들 복수의 차원을 반영하여 주민의 인식을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들 지표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만으로 삶의 질을 측정할 경우 각 지표에 개인이 부여하는 상이한 중요도의 가중치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Andereck & Jurowski(2005)는 삶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개인 외적 요소인 객관적 차원과 개인의 느낌과 인식을 반영하는 주관적 차원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장소의 복합적 속성에 주민이 부여하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Brown, Raphael, & Renwick(1998)에 의해 최초 시도되었는데 이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을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분류하고, 각 차원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측정하고 두 값을 합한 변환된 지수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각각의 기준지표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객관화된 수치로 제시하기 때문에 장소가 지니고 있는 총합적 속성에 대해 지역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응용되어 왔다(Andereck & Jurowski, 2005; Andereck, Valentine, Vogt, & Knopf, 2007; Massam, 2002; 서현숙, 2009).

2.3. 관광에 대한 주민 태도와 지속가능성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의 태도를 설명하는 이론은 몇 가지가 있으나 (즉, Doxey(1975)의 태도변화 모델; Pearce, Moscardo, & Ross (1996)의 사회대표이론 등) 기존 연구들에서 지배적으로 적용되어 온 이론은 사회교환이론이다(Ap, 1992; Gursoy, Jurowski, & Uysal, 2002; Lindberg & Johnson, 1997; 오정학, 윤유식, 2009). 이 이론은 사회적 교환에 기반하여 관광개발로부터 이익을 얻는 지역주민은 그렇지 못한 지역주민보다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하고 부정적인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는 더 적게 인식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의 경제적 차원은 긍정적 태도와 더욱 밀접하며 (Jurowski, Uysal, & Williams, 1997; Lankford & Howard, 1994; 손호기, 김상범, & 김규호, 2010; 주영민, 박덕병, 2008), 관광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관광산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 혹은 가족 구성원이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관광의사결정에 더 많이 관여되어 있고, 관광산업에 종사하면서 관광객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사람일수록 관광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nkford & Howard, 1994).

그러나 사회교환이론은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의 단면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관광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이러한 태도요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관광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혀 내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Andereck & Jurowski(2005)는 관광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소의 속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중요도와 만족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삶의 질 지수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가 결합될 수 있는 측정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이들

은 Brown et al.(1998), Massam(2002)에 의해 활용된 삶의 질 척도와 관광개발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결합한 관광과 삶의 질(tourism quality of life: TQOL) 척도를 자신의 연구에 활용하였고(Andereck et al., 2007), 서현숙(2009)은 이를 국내의 축제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관광개발의 테제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방법은 본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등재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호(Coccosis, 1995)의 테제들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공평한 편익분배, 관광개발 방향 결정에 대한 평등한 관여와 경제적 지속성, 생태보전, 사회적 평등과 같은 경제, 환경, 사회문제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다(Flint & Danner, 2001). 이와 관련하여 Galston & Baehler(1995)는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개발의 핵심요소는 효율성(efficiency)과 평등(equity)의 균형이며, 이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고 역설하였다. 첫째는 무해(no-harm)로 개발의 주요한 목적은 효율이지만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양한 개발프로그램들 중 최소이익집단의 웰빙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한다는 맥시민(maximin)의 원칙으로, 개발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평등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효율과 공평성의 조화, 즉, 최대-최소이익집단 간의 상대적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형평성(equalization)의 원칙이다.

따라서 양동마을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방향성은 첫째, 경제, 기후, 사회, 문화, 환경과 같은 삶의 질의 객관적 차원과, 삶의 만족, 행복, 웰빙의 느낌, 삶의 기준에 대한 믿음과 같은 정서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Dissart & Deller, 2000), 둘째,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포괄적 속성

들이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지속성, 환경보호의 테제 하에서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3. 연구방법

3.1. 측정도구

이상 논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Brown et al. (1998)에 의해 최초 개발되고, Massam(2002), Andereck & Jurowski (2005), Andereck et al.(2007)에 의해 활용된 관광과 삶의 질 척도 (Tourism and Quality of Life Scale: TQOL)를 측정도구로 이용하였다. TQOL척도는 관광개발과 삶의 질의 관계를 평가하는데 있어 장소와 관련된 경제, 사회문화, 환경 분야의 다차원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관광이 이들 항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종합하여 관광과 삶의 질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명시적 이슈는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이기 때문에 원래의 TQOL 척도를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삶의 질 척도(Designation and Quality of Life Scale: DQOL)로 변형하였고, 이들 척도를 이용하여 양동마을 주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의 속성과 이에 대한 만족도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들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부터 지역주민의 삶의 질 지수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 지수를 도출하여 장소의 의미와 삶의 충족 요인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와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구성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

측정항목	측정
자연 및 문화유산 보존; 다양한 마을 행사; 마을 문화보존; 타 지역과의 문화교류; 긍정적인 마을 이미지; 마을 내 여러 관람활동; 주민의 여가 및 오락기회; 원활한 교통 환경; 마을확장과 인구증가 억제; 인구 과밀과 혼잡 방지; 적절한 마을 정비계획과 토지이용; 쓰레기 처리 및 관리; 자연지역 보존;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 문화 및 역사지역 보존; 깨끗한 공기와 물; 안전; 평화로움과 조용함; 치안유지 및 화재예방시설; 마을의 아름다움 보존; 안정된 제도적 환경; 나의 생활방식 유지; 내 삶을 존중하는 관광객 유치; 나의 높은 삶의 질; 편리한 대중교통; 튼실하고 다양한 경제활동; 주민을 위한 충분한 일자리; 주택 및 토지의 가치; 많은 상점과 식당;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상점과 식당; 범죄 예방과 관광자원 및 시설 훼손 예방; 과도한 음주 방지;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한 가격; 마을에 대한 소속감; 마을 개발 정책결정 참여; 마을에 대한 자부심; 도로 및 다리 건설 등 공공서비스; 마을의 세급수입	각 항목의 중요도, 만족도,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각 항목에 미친 영향을 각각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3.2. 자료수집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2011년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연구자와 교육을 받은 학생도우미 6명이 매주 목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씨족 마을의 특성상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우려되어 설문조사 실시에 앞서 지인을 통해 마을 대표자와 사전 접촉을 하였고, 3차례의 개별면담을 통해 연구의 취지를 납득시키고 동의를 구하였다. 조사원은 자신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찰을 하고,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구역을 나누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정용 고무장갑을 제공하였고, 마을의 특성상 고령자가 많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어 필요시 연구자와 조사원들이 마을 주민을 면대면 접촉하여 각 문항을 직접 읽어주고 내용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민의 비협조, 설문지의 복잡성, 문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설문지 회수에 어려움이 많아 총 360여 명의 전체 주민 중 100부만 회수되었으며,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1부를 제외한 98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3.3. 분석방법

자료의 실증분석 절차는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문항의 내적일관성 및 요인범주화를 위해 신뢰성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전반에 걸친 삶의 질 항목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 세계문화유산등재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다시 중요도-만족도 계산방법(Brown et al., 1998)을 이용하여 측정항목의 삶의 질 지수를 구하였다. 이의 방법은 <표 2>와 같으며, 항목별 지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력과 수준을 의미한다.

<표 2> QOL 지수 계산표 및 지수해석

	중요도	만족도		삶의 질 지수(QOL)
		원래값	리코딩값	
QOL 지수 계산표	5	5, 4, 3, 2, 1	2, 1, 0, -1, -2	+10, +5, 0, -5, -10
	4	5, 4, 3, 2, 1	2, 1, 0, -1, -2	+8, +4, 0, -4, -8
	3	5, 4, 3, 2, 1	2, 1, 0, -1, -2	+6, +3, 0, -3, -6
	2	5, 4, 3, 2, 1	2, 1, 0, -1, -2	+4, +2, 0, -2, -4
	1	5, 4, 3, 2, 1	2, 1, 0, -1, -2	+2, +1, 0, -1, -2
QOL 지수해석	0 이상		긍정적 삶의 질	
	0 미만		부정적 삶의 질	
	+4.5 이상		훌륭함	
	+1.5~+4.5 미만		꽤 수용할 만함	
	-1.5~+1.5 미만		적절함	
	-1.5 미만~-4.5 이상		문제 있음	
	-4.5 미만		문제 심각	

자료 : Massam, B. H.(2002).

다음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DQOL지수는 <표 2>의 QOL지수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표 2>와 같이 각 문항을 리코딩하여 삶의 질 지수를 구하고 DQOL 측정항목의 원래 값을 <표 3>에 제시된 -3에서 +3까지의 값으로 리코딩하고 각각 변환된 삶의 질 지수와 DQOL 값을 곱하여 DQOL지수를 구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각 항목의 DQOL지수는 +30에서 -30의 범위에 놓이게 되며 값이 높은 항목일수록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마을에 미친 영향(DQOL) 측정항목의 코딩변경 방법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삶의 질에 미친 영향(DQOL)						
		원래값	리코딩값			
긍정(+)문항	1= 매우 부정적임		-3	부정(-)문항	1= 매우 부정적임	3
	2= 부정적임		-2		2= 부정적임	2
	3= 보통		1		3= 보통	1
	4= 긍정적임		2		4= 긍정적임	-2
	5= 매우 긍정적임		3		5= 매우 긍정적임	-3

자료 : Andreck & Jurowski(2005, 145)을 토대로 연구자 구성.

마지막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마을 주민의 태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표본의 특성

실증분석에 활용된 양동마을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분포는 남성(42.9%)보다 여성(57.1%)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은 60대 이상(46.5%), 50대(28.6%), 40대(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46.9%), 중졸이하(34.7%), 대학이상(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지는 타 지역(46.9%)보다 양동마을(53.1%)이 다소 높았고, 마을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이 63.3%로 과반수를 넘었다. 직업은 농업(28.6%), 자영업(26.5%)이 과반수를 넘었고, 기타(12.2%), 주부(10.2%), 무직(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 소득은 100만 원 미만(40.8%)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 분석된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의 표본은 대부분 농업과 자영업 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여유롭지 않은 생활을 하는 노년층이 중심이 되지만 그 태생은 양동마을과 타 지역에 근간을 두는 집단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양동마을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42	42.9	출생 지역	양동마을	52	53.1
	여성	56	57.1		타지역	46	46.9
연령	20대	2	2.0	직업	농업	28	28.6
	30대	2	2.0		자영업	26	26.5
	40대	18	18.2		주부	10	10.2
	50대	28	28.6		서비스/관광	8	8.2

연령	60 이상	46	46.5	직업	무직	10	10.2
	중졸이하	34	34.7		기타	16	16.3
교육 수준	고졸	46	46.9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0	40.8
	대학(교)이상	18	18.4		100-199만원	18	18.4
거주 기간	10년 이하	28	28.6		200-299만원	12	12.2
	11-19년	8	8.2		300-399만원	16	16.3
	20년 이상	62	63.3	400만원 이상	12	12.2	

N=98

4.2.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삶의 질 척도 분석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등재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양동마을의 삶의 질 지수와 관련한 38개 중요도 항목을 이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고, <표 2>의 중요도와 만족도 변환공식을 이용하여 삶의 질 지수를 구한 후 이들 지수와 문화유산 등재의 영향인식 문항을 이용하여 문화유산등재와 삶의 질(DQOL)지수를 도출하였다.

4.2.1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양동마을의 삶의 질과 관련한 38개 항목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요도 측정항목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전체의 신뢰도는 0.911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자료를 해석하고 이해함에 있어 원자료의 수를 줄여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 동일한 개념적 차원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관계를 탐색하여 타당도가 약한 변수를 정제하기 위해 측정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principle component)분석의 상관행렬을 이용한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의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였고, 공통요인에 대한 변수

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고유 값(eigen value)을 기준으로 1이 넘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총 38개 항목 중 25개 항목이 8개의 요인을 설명하고 있었고 13개 문항은 제거되었다. 수렴된 요인모형은 표본화 적합도, Bartlett 구형성 검정치의 유사 x2통계량, 요인부하량, 누적 분산 설명력 및 요인신뢰도 등 모든 통계량에서 요인분석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¹⁾ 추출된 요인들은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공통 개념을 기초로 생활환경(요인1), 문화환경(요인2), 경제적 삶의 질(요인3), 자연환경보존(요인4), 공동체의식(요인5), 공동편의시설(요인6), 인구 억제(요인7), 교통환경(요인8)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표 5> 장소속성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측정항목	요인부하량	커뮤벌리티	분산	고유값	신뢰도
생활 환경	평화로움과 조용함 유지	.797	.770	12.32	3.08	.791
	치안유지와 화재예방 시설	.769	.677			
	마을의 아름다움 보존	.655	.692			
	안정된 제도적 환경	.651	.616			
	마을의 안전	.543	.557			
문화 환경	다양한 마을 행사 개최	.723	.648	9.85	2.46	.729
	마을문화 보존	.714	.637			
	타 지역과의 문화교류	.626	.551			
	긍정적인 마을 이미지	.589	.621			
	자연 및 문화유산 보존	.575	.583			

1) 요인분석과정에서 다소 많은 변수(13개 항목)가 제거된 주된 이유는 문항들이 지니고 있는 공선성으로서 많은 문항들이 상이한 요인에 교차 적재되는 현상이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요인분석을 위해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부분적인 한계점을 밝혀둠.

경제적 삶의 질	주민을 위한 충분한 일자리	.825	.773	9.71	2.43	.794
	튼실하고 다양한 경제활동	.769	.798			
	나의 높은 삶의 질	.565	.810			
	나의 생활 방식 유지	.546	.727			
자연 환경 보존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	.802	.668	9.36	2.34	.760
	자연지역의 보존	.780	.750			
	문화 및 역사지역 보존	.719	.726			
공동체 의식	마을에 대한 자부심	.842	.772	7.78	1.95	.731
	마을에 대한 소속감	.811	.781			
공동편의 시설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상점과 식당	.803	.788	7.04	1.76	.704
	많은 상점과 식당	.777	.689			
인구 억제	인구과밀과 혼잡의 방지	.764	.730	6.86	1.72	.659
	마을확장과 인구증가 억제	.713	.746			
교통 환경	편리한 대중교통	.749	.707	6.80	1.70	.629
	원활한 교통 환경	.706	.615			
KMO's MSA=0.619, Bartlett's test $\chi^2=690.673$, DF=300, Sig=0.000, 누적분산=69.73						

4.2.2. 세계문화유산등재와 삶의 질 인식

도출된 요인과 문항들에 기초하여 삶의 질 지수와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삶의 질 지수를 구했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동마을의 삶의 질과 관련한 주민의 인식은 추출된 요인과 측정항목 모두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추출된 8개 요인별 중요도는 공동체의식(4.43), 교통환경(4.31), 생활환경(4.30), 경제적 삶의 질(4.16), 문화환경(4.06), 자연환경 보존(4.06), 공동편의시설(3.52), 인구억제(3.5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개 요인에서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만족도는 공동체의식(3.67), 생활환경(3.39), 자연환경보존(3.31), 문화환경(3.06),

교통환경(2.99), 경제적 삶의 질(2.93), 공동편의시설(2.88), 인구억제(2.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볼 때 양동마을 주민은 공동체의식을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과 동시에 만족도 역시 가장 높고, 생활환경과 문화환경 및 자연환경 보존 역시 중요도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장소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환경과 경제적 삶의 질은 높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양동마을의 취약한 요소였으며, 공동편의시설은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불만족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마을 주민의 삶의 질 관련 항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평화로움과 조용함(2.86)'과 '인구억제(2.90)'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보통(3점)~긍정(4점)의 사이에 분포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인식이 매우 높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두 항목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외부 방문객들이 주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의식(3.71), 문화환경(3.53), 생활환경(3.36), 교통환경(3.35)의 요인들에서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마을 주민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문화환경과 생활환경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동마을 주민의 삶의 질 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장소의 가치와 관련된 8개 요인의 삶의 질은 -0.17~3.15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적절한 수준(-1.5 이상~+1.5 미만)이거나 꽤 수용할 만한 수준(+1.5 이상~+4.5 미만)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동체 의식(3.15)과 생활환경(1.76), 자연환경 보존(1.64)과 관련한 삶의 질은 꽤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문화환경(0.27)과 인구억제(0.64)와 관련한 삶의 질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삶의 질(-0.26), 교통환경(-0.18), 공동편의시설

(-0.17)에 대한 삶의 질 인식 수준은 비록 적절한 수준이긴 하였으나 그 값이 0보다 낮아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삶의 질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양동마을 주민은 공동체의식과,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과 관련된 생활환경 및 잘 보존되고 있는 자연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삶의 질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제적 삶의 질과 공동편의시설, 교통환경과 관련된 요소들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 장소속성의 중요도, 만족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영향의 평균과 QOL, DQOL지수

요인	측정항목	중요도 ^a	만족도 ^b	세계문화유산등재영향 ^c	삶의 질 지수 ^d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삶의 질 지수 ^e
생활환경	평화로움과 조용함 유지	4.34	3.31	2.86	1.13	2.43
	치안유지와 화재예방 시설	4.57	3.53	3.61	2.53	5.92
	마을의 아름다움 보존	4.37	3.69	3.67	3.24	6.88
	안정된 제도적 환경	4.24	3.10	3.31	0.48	2.73
	마을의 안전	3.97	3.31	3.35	1.40	3.77
	평균	4.30	3.39	3.36	1.76	4.35
문화환경	다양한 마을 행사 개최	3.84	2.96	3.44	-0.25	0.90
	마을문화 보존	4.35	3.10	3.53	0.27	2.46
	타 지역과의 문화교류	3.67	2.88	3.29	-0.43	0.76
	긍정적인 마을 이미지	4.24	3.31	3.53	1.35	3.61
	자연 및 문화유산 보존	4.21	3.04	3.86	0.41	2.43
	평균	4.06	3.06	3.53	0.27	2.03
경제적 삶의 질	주민을 위한 충분한 일자리	4.24	2.77	3.19	-0.94	1.51
	튼실하고 다양한 경제활동	4.08	2.91	3.15	-0.41	2.11
	나의 높은 삶의 질	4.20	2.98	3.17	-0.11	1.70
	나의 생활 방식 유지	4.11	3.06	3.10	0.43	1.23
	평균	4.16	2.93	3.15	-0.26	1.64

자연 환경 보존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	3.50	2.92	3.02	0.06	-0.02
	자연지역의 보존	4.27	3.31	3.27	1.49	4.45
	문화 및 역사지역 보존	4.40	3.69	3.69	3.29	6.19
	평균	4.06	3.31	3.33	1.61	3.54
공동 체 의식	마을에 대한 자부심	4.49	3.83	3.81	3.98	9.11
	마을에 대한 소속감	4.37	3.51	3.61	2.33	6.27
	평균	4.43	3.67	3.71	3.15	7.69
공동 편의 시설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상점 과 식당	3.76	2.98	3.20	0.12	3.59
	많은 상점과 식당	3.27	2.77	3.15	-0.46	1.71
	평균	3.52	2.88	3.17	-0.17	2.65
인구 억제	인구과밀과 혼잡의 방지	3.76	2.98	2.90	0.17	1.00
	마을확장과 인구증가 억제	3.27	2.77	3.62	1.10	2.92
	평균	3.52	2.88	3.26	0.64	1.96
교통 환경	편리한 대중교통	4.30	3.06	3.21	0.19	3.19
	원활한 교통 환경	4.32	2.92	3.49	-0.55	2.39
	평균	4.31	2.99	3.35	-0.18	2.79

주: a척도: 1=전혀 중요하지 않음, 5=매우 중요함. b척도: 1=전혀 만족하지 않음, 5=매우 만족함. c척도: 1=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5=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d척도의 범위:-10에서 10까지(높을수록 양호). e척도의 범위:-30에서 30까지(높을수록 양호).

마지막으로 삶의 질 지수와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영향인식 문항을 결합하여 세계문화유산등재가 양동마을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지수(DQOL index)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8개 요인의 DQOL지수는 최소 -30에서 최대 30까지의 가능분포 선상에서 1.64~7.69의 분포를 보였다. 이중 공동체의식이 7.69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삶의 질은 1.64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삶의 질 지수가 높을수록 DQOL지수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삶의 질 지수에서 음(-)

의 값을 보였던 항목들이 모두 정(+)¹의 값을 보임으로써 양동마을 주민들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마을의 삶의 질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동마을 주민들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써 마을에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들과 타 지역과의 문화교류가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문화환경 측면의 기대를 지니고 있었고, 마을에 많은 상점과 식당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공동편의시설 측면의 기대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교통환경에 있어서도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경제적 측면으로서 삶의 질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던 관련 항목들이 모두 높게 나타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지니고 있었다.

4.3.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 영향 요인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대한 양동마을 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문항의 수준에서 유의한 항목을 탐색하기 위해 요인이 아닌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내적일관성이 검증된 25개 항목을 독립변수로 이용하였고, 각 항목의 중요도, 만족도 및 세계문화유산등재가 미친 영향의 측정변수를 모두 활용하였다. 모수추정방법은 투입되는 독립변수의 수가 많아 모형 식별 및 변수 간 공선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유의한 변수만을 걸러내어 영향력이 큰 변수 순으로 결과를 제시해주는 단계별 입력 방식(stepwise)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표 7>과 같이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는 6개 항목에서만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였고 이들 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분산설명력(R²)은 총 변량의 66.7%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한 문항들은

중요도 2문항(문화 및 역사지역 보존, 인구과밀과 혼잡의 방지), 만족도 1문항(자연지역의 보존),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영향 3문항(마을문화 보존, 마을에 대한 자부심, 나의 높은 삶의 질)이었으며 5문항이 정(+)
의 영향을 미쳤고, 중요도10(인구과밀과 혼잡의 방지) 문항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를 종합해볼 때 양동마을 주민은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태도(mean=4.04)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문화 및 역사지역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온 자연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보존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문화유산 등재가 마을문화를 보존하고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며, 높은 삶의 질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가 과밀되고 혼잡해지는 현상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마을 주민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밀려드는 외부 방문객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중 영향력(β)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요소는 문화와 역사지역을 보존하고 인구과밀과 혼잡을 예방하는 것으로서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어 향후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변수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표 7〉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의 영향요인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B(β)	B(β)	B(β)	B(β)	B(β)	B(β)
상수	1.138	2.595	1.834	1.191	1.584	1.033
중요도15	.65(.45)**	.77(.53)**	.67(.46)**	.69(.48)**	.81(.56)***	.80(.56)***
중요도10	-	-.49(-.40)**	-.47(-.39)**	-.64(-.53)***	-.69(-.57)***	-.61(-.50)***
만족도13	-	-	.36(.33)*	.30(.27)*	.37(.34)**	.37(.34)**
영향력3	-	-	-	.41(.34)*	.45(.38)**	.31(.26)*
영향력36	-	-	-	-	.28(.28)*	.45(.45)**

영향력24	-	-	-	-	-	.42(.32)*
R^2 (수정 R^2)	.20(.18)	.36(.32)	.46(.41)	.55(.49)	.61(.55)	.67(.60)
R^2 변화량	Δ.20	Δ.15	Δ.10	Δ.10	Δ.06	Δ.06
F-변화량	8.58**	7.91**	5.92*	6.54*	4.66*	4.84*

종속변수: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태도(mean=4.04). 입력방식: stepwise *p<.05 **p<.01 ***p<.001. Durbin-Watson: 2.072. 독립변수: 중요도15=문화 및 역사지역 보존, 중요도10=인구과밀과 혼잡의 방지, 만족도13=자연지역의 보존, 영향력3=마을문화 보존, 영향력36=마을에 대한 자부심, 영향력24=나의 높은 삶의 질

5. 결론

개별적, 집단적, 문화적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 부여하는 의미는 가족환경에 대한 생생한 인식, 공유된 경험에 기초한 동료의식이며, 오랜 기간을 거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 사회의 의미를 창조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주민이 공동체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사회적 유대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맥락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온 지역애착심(Hidalgo & Hernandez, 2001), 장소감(sense of place)(Hummon, 1992), 장소동질성(place identity)(Proshansky, 1978)과도 연관된 개념으로, 문화유산(Um & Crompton, 1987), 장소에 대한 감성적, 상징적 애착심(Williams & Lawson, 2001), 장소의존성(Moore & Graefe, 1994), 자연환경, 문화 환경, 가족 및 사회활동, 역사, 전통(Kaltenborn, 1997),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요소(Valentine, 1999), 사회적 친분(고동완 & 김현정, 2003)과 같은 요소들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장소와 관련된 주민의 삶의 질은 언급된 포괄적 요소들에 대한 보존가치와 혜택가치가 종합되어 표출된 인식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

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양동마을 주민은 생활환경, 문화환경, 경제적 삶의 질, 자연환경 보존, 공동체의식, 공동편의시설, 인구억제, 교통환경의 요인들을 장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주요한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과 평화로움, 아름다움, 안전, 제도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 및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은 마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의 가치차원들이다. 이에 추가하여 경제적 삶의 수준과 문화환경 및 자연환경 역시 중요하게 인식하는 장소의 가치차원들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양동마을 주민이 장소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을의 고유한 장소성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을에 살면서 실질적인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생활여건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만족도로 확장해보면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마을 주민의 정서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장소성과 달리 실질적인 편익과 관련한 요소들은 대부분 불만족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을 주민들은 장소의 고유성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인식하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비교적 잘 보존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만 정작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관련해서는 많은 불편과 불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질 지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는 주민이 장소에 부여하는 높은 의미에 기인한 것이지 만족도에 기인하는 영향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낮은 만족도 요인들은 이들의 삶의 질을 부정적으로 귀인하는 요소가 되고 있고, 이중에서도 경제적 삶의 질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양동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 개선의 관점에서 향후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존 및 개발은 주민의 경제적 수준을 높이고 공동편의시설을 확충하며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마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보통과 긍정적인 수준의 경계에 있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자신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수 역시 긍정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자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공동체의식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져오는 가장 가치 있는 기여요인이며, 생활환경 개선, 자연환경 보존, 공동편의시설, 문화환경 개선 역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요인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사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이전에도 마을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교적 만족스럽게 영위했던 장소의 요인들로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특별히 상승된 기대효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소로서 부정적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경제적 삶의 질과 공동편의시설 및 교통환경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긍정적인 수준으로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마을 주민의 기대가 경제적 여건과 공동편의시설 및 교통환경 개선측면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들을 주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여 얼마만큼 개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향후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열정이 수반된 세계문화유산 보존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이에 덧붙여 마을 주민은 밀려드는 외부 방문객이라는 새로운 외부환경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마을이 방해받고 혼잡해 질 것에 대한 우려 섞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 이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 또한 중요한 해결과제로 대두된다. 더욱이 이러한 요인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마을 주민의 부정적인

태도를 이끄는 결정적인 원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부 방문객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냉담한 태도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방문객과 마을 주민의 갈등 조장 및 마을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마을 탐방시간을 조정하거나, 안내요원을 동반한 관람시스템 구축 및 관광지가 아닌 삶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방문객들에게 계몽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의 측면에서 이러한 방문객들의 유입현상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환으로서의 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양동마을 주민의 인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큰 의미는 현재보다 나아진 삶에 대한 기대와 연결되어 있고, 마을 주민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마을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며 희생했던 그 동안의 삶을 다소나마 보상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이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경제수준 개선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관리되어져왔던 장소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것에 병행하여 현 시점에서 이들에게 있어 지속가능한 양동마을의 가장 주요한 테제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한 분배라고 보여지며 내부인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전제되는 양동마을 지속가능성의 미래는 이에 대한 명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양동마을 주민의 관점에서 이들이 장소에 부여하는 의미와 삶의 만족/불만족 요인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지속가능한 마을의 보존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하는 이슈들을 조명하여 향후 마을의 정통성이 유지되면서 주민의 긍정적 태도와 능동적 참여가 전제된 개발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설문에 참여한 마을 주민의 낮은 비율로 본 연구의 결과를 마을 주민전체의 공통적인

인식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거의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낮았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마을 주민의 고령화와 함께 설문조사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일부 주민은 마을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수많은 설문조사들이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며 설문조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주민 중 상당수는 마을의 현안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고령자를 제외하더라도 마을을 둘러싼 외부의 관심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마을 전체주민의 정서로 확대해석함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며 침묵하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표본 수의 제한으로 조사에 응한 주민의 평균화된 인식만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기존 연구들에서 주장해왔던 다양한 변인들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 또한 향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장소의 의미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이끌어냄에 있어 계량화된 척도를 이용함으로써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축적된 이들의 심오한 정서를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과 같은 정성적 연구기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강동진, & 황기원. (1997). 경주 양동마을 변천의 해석-보전 대상 추출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2(5), 265-296.
- 고동완, & 김현정. (2003).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관광학연구*, 27(3), 97-114.
- 김대회, & 이채식. (200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생태적 접근. *농촌지도와 개발*, 11(1), 161-174.
- 김봉렬. (2010). 사회구조의 건축적 대응-양동마을과 주택들(I). 국립중앙도서관 주최 길 위의 인문학 탐방 자료집, 1-91.
- 서현숙. (2009). 축제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호기, 김상범, & 김규호. (2010). 마을 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가 주민지지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17(2), 347-368.
- 이병기. (2010). 농촌 과소화 실태와 전망. *농촌지도와 개발*, 17(4), 773-797.
- 오정학, 김철원, & 최종률. (2011). 관광통역안내사의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5(3), 285-304.
- 오정학, & 윤유식. (2009). 지역애착심과 관광개발선호, 평가, 만족, 인구학적 특성과 관광개발지지, 효과인식의 영향관계. *관광연구*, 24(5), 275-295.
- 이광욱. (2010). 청산도 슬로우걷기축제에 대한 장소성, 몰입, 자긍심간의 영향관계 연구. *한국도서연구*, 22(2), 1-18.
- 이은숙. (2004). 장소에 대한 애착의 개념구조. *사회과학연구*, 20, 1-16.
- 장옥연. (1999). 장소·장소성, 장소마케팅, CI. *도시문제*, 34(363), 116-119.
- 조상희. (2011). 경주시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선정에 따른 거주민 의식에 관한 사례 연구. *호텔관광연구*, 13(1), 1-10.
- 주영민, & 박덕병. (2008). 농촌관광마을사업에 대한 관광영향 지각 및 갈등이 주민 참여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15(4), 577-597.
- 최막중, & 김미옥. (2001). 장소성의 형성요인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실증분석: 대학로의 로데오 거리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36(2), 153-162.

- 한상일. (2003). 해안관광지 장소성의 형성요인과 차이분석에 관한 연구—땅끝마을과 해금강의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18(2), 257-274.
- Andereck, K. L., & Jurowski, C. (2005). Tourism and Quality of Life. In G., Jennings and G. N. Nickerson(Eds.), *Quality Tourism Experiences*, 137-153. London: Butterworth-Heinemann/Elsevier.
- Andereck, K. L., Valentine, K. M., Vogt, C. A., & Knopf, R. C. (2007). A Cross-cultural Analysis of Tourism and Quality of Life Perception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5(5), 483-501.
- Ap, J. (1992). Understanding Host Residents's Perceptions of the Impacts of Tourism through Social Exchange Theor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Ann Arbor MI: UNI Dissertation Services.
- Bricker, K. S., & Kerstetter, D. (2005). Saravanus ni vanua: Exploring Sense of Place in the Rural Highlands of Fiji. In G., Jennings and G. N. Nickerson (Eds.), *Quality Tourism Experiences*, 99-111. London: Butterworth-Heinemann/Elsevier.
- Brown, K., Raphael, D., & Renwick, R. (1998). *Quality of life profile, item #2. Quality of life research unit, center for health promotion*.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 Coccosis, H. (1995). *Sustainable Tourism? European experiences*. CAB International.
- Dissart, J. C., & Deller, S. C. (2000). Quality of Life in the Planning Literature.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15(1), 135-161.
- Doxey, G. V. (1975). A Causation Theory of Visitor and Resident Irritations, Methodology and Research Inferences. In Conference Proceedings: *Sixth Annual Conference of Travel Research Association*, 195-198.
- Flint, W. R., & Danner, M. J. E. (2001). The Nexus of Sustainability and Social Equity: Virginia's Eastern Shore(USA) as a Local Example of Global Issues.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3(2), 1-30.
- Galston, W. A., & Baehler, K. J. (1995). *Rural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Connecting Theory, Practice, and Possibilities*. Washington, DC: Island Press.

- Gursoy, D., Jurowski, C., & Uysal, M. (2002). Resident Attitudes: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1), 79-105.
- Hidalgo, M. C. & Hernandez, B. (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73-281.
- Humback, K., & Shaw, R. W. (1972). Toward a Quantitative Measures of the Quality of Life. *Paper Presented at the Quality of Life Symposium*.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Hummon, D. M. (1992). Community Attachment: Local Sentiment and Sense of Place, In Altman, Irwin & S. M. Low (eds.), *Place Attachment*. Plenum Press, New York and London.
- Jackson, J. B. (1994). *A Sense of Place, a Sense of Tim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Johnston, R. J., Gregory, D., & Smith, D. M. (1986).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2nd ed.). Oxford: Blackwell Reference.
- Jurowski, C., M. Uysal, & Williams, R. D. (1997). A Theoretical Analysis off Host Commun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4), 998-1009.
- Kaltenborn, B. P. (1997). Nature of Place Attachment: A Study among Recreation Homeowners in Southern Norway. *Leisure Science*, 19(3), 175-189.
- Kotler, P., Haider, D. H., & Rein, I. (1993). *Marketing Places: Attracting Investment, Industry, and Tourism to Cities, States, and Nations*. The Free Press: Macmillan, Inc.: 2.
- Lankford, S., & Howard, D. (1994). Developing a Tourism Attitude Impact Sca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1), 121-139.
- Lindberg, K., & Johnson, R. L. (1997). Modeling Resident Attitudes towar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20), 402-424.
- List, P., & Brown, P. (1996). Moving Toward an Expanded Land Management Ethic. In B. L. Driver, D. Dustin, T. Baltic, G. Elsner, & G. Peterson(Eds.), *Nature and the Human Spirit*: 457-564.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 Massam, B. H. (2002). Quality of Life: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3), 29-34.

- Moore, R. L. & Graefe, A. R. (1994). Attachment to Recreation Settings: The Case of Rail-trail Users. *Leisure Science*, 16(1), 17-31.
- Pearce, P., Moscardo, G., & Ross, G. F. (1996). *Tourism Community Relationships*. Oxford, UK: Elsevier Science Ltd.
- Potts, T., Backman, K., Uysal, M., & Backman, S. (1992). Issues in Rural Community Tourism Development. *Visions in Leisure and Business*, 11(1), 5-13.
- Proshansky, H. M. (1978). The City and Self-identity. *Environment and Behavior*, 10(2), 147-169.
- Relf,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 Stokols, D., & S. A. Shumaker. (1981). People in Places: A Transactional View of Settings, In J. H. Harvey (eds.),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Um, S., & Crompton, J. L. (1987). Measuring Resident's Attachment Levels in a Host Commun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26(1), 27-29.
- UNESCO press release No. 2010-96.
- Valentine, K. (1999). *Tourism and Quality of Life in Arizona: A Cross-cultural Study of Hispanics and Anglos*. Unpublished M. S. thesis. Arizona State University.
- Williams, J., & Lawson. R. (2001). Community Issues and Resident Opinions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2), 269-290.
- Young, A. R. (1985). Us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Recreation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2), 90-106.